

社會의 病的 現象 (十四)

獨逸에서

哲學博士 李灌鎔(寄)

人格分立의 現象 (續)

누구든지 此世에 生할 때에는 動物的인 人類의 天性和 쏘 그 人種 乃至 家族에 特殊한 遺傳性으로 成立된 自然的 人格을 가지고 生存競爭界에 入합니다. 이 自然的 人格은 社會生活에 依하여 發展될 理想的 人格의 基礎이며, 教育家의 重要한 目的物이 되는 것입니다. 家庭의 養育과 教育의 指導와 社會의 影響에 依하여 이 單純한 自然的 人格은 漸次로 生長하고 發展되야, 複雜한 理想的 精神的 人格으로 變化되는 것이 常例입니다. 만일 教育이 良好치 못하거나, 或 社會生活이 病的 狀態에 在하거나, 其他 個人 事情을 依하여 自然的 人格의 性質과 適合치 못한 理想을 得하게 되며, 此와 相反하는 經驗에 經驗을 加하여 一精神的 人格을 形成하게 되면, 自然的과 精神的의 兩 人格이 互相 衝突되는 境遇가 多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大概는 感情의 要否와 理想의 判斷이 相反함을 經驗하며, 感情을 肉體의 作用이라 하고 理想을 精神의 作用이라 하여, 人性의 善惡과 人格의 強弱을 이 標準으로 決定합니다. 이는 古代부터 어찌 聖人이든지 모다 認定한 事實이니, 卽 何宗教를 觀하든지 肉體와 精神을 分立하고 이 觀念을 宇宙 全體에까지 推用하여 天神과 惡魔의 對立 狀態를 說明하며, 人類는 此兩極 間에 鍾搖하다가 一生을 送하는 것갓치 觀察하얏습니다. 神秘的 講論을 不嗜하든 孔夫子는 此를 稱하여 人心과 道心이라 하얏다 합니다(子思).

煩悶과 人格發展

이에 人心이라 함은 遺傳된 自然的 人格을 말함이고, 道心이라 함은 儒家의 道로 與한 直接 間接의 教育影響에 依하여 社會生活이 形成한 精神的 人格을 指示한 것으로 生覺합니다. 要컨대 遺傳된 것과 學得한 것을 云함이니, 一人格의 舊狀態와 新狀態를 指示함인줄 압니다. 만일 兩者의 性質이 相反하

야 一便이 要求하는 것을 他便이 排斥하고 一便이 愛好하는 것을 他便이 憎惡하면, 兩者의 分立的 衝突이 生하여 心中에 痛感을 經驗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經驗은 一旦 變常한 事件이 起하는 때에 生하는 것이 普通입니다. 假令 此에 一人이 有하여 本來 皇室의 恩德을 被함이 多함으로 그 皇室에 對한 忠心이 深切하다 假定합시다. 그런데 此人이 近世의 共和主義나 社會主義的 思潮에 感染되야 그 理想이 皇室에 對한 忠心과는 相反이 된다 하면 그 感情과 理想은 衝突이 生할 것입니다. 그러나 政治에 干涉치 아니하고 自己의 職業이 假令 希臘文學 갖은 教授에 從事한다 하면, 兩 人格의 衝突은 비록 有할지라도 此로 因한 煩悶은 別로 甚한 것이 없을 것입니다. 만일 一旦에 『라테나우』 暗殺事件과 갖은 것이 生하여 自己 大學에서도 共和國憲法을 擁護한다는 決議案을 國會로 送致할 때에 自己도 署名히 아니치 못하게 되면, 만일 自己 理想의 命令을 服從하여 署名한 結果로 自己의 親族 親友와 絶交함은 勿論 그 自己가 被한 恩惠를 背叛하게 되면, 만일 署名 拒絶을 因하여 自己를 欺瞞하고 自己의 地位를 失하게 되면, 容易히 左右를 決定치 못하는 同時에 一種 浮躁의 狀態에 入하여, 睡眠이 不安하고 煩悶을 經驗하게 됨이 常例입니다. 如斯한 境遇에 愛君하는 舊人格과 社會主義者인 新人格이 相面相戰하여 苦痛을 經驗하게 되는 것임다. 만일 此人이 忠君하는 人이 아니거나, 또는 社會主義者가 아니면 衝突도 無하고 苦痛도 無하여 幸福스럽겠지만은 該人格 그것에는 少許의 變更도 없을 것입니다.